

소리축제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성료

165여 공연에 소리의 향연 펼쳐지는 등 '큰 호응'

지난 주말과 개천절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았던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를 주축으로 한 세계음악과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개막공연 'Sori from the world'는 모든 연주팀이 한 무대에 자리해, 전통음악 판소리와 세계의 다양한 민족음악을 연합오케스트라로 구성한 합작의 무대를 선보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은 축제는 28개국 165차례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소리의 향연을 펼쳤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대미는 한국 농악 가락의 명맥을 이어가는 젊은 연희 그룹들의 공연 '비트 인스퍼레이션'으로 장식됐다. 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던 2016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도 폐막했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이번 축제는

국민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 아카이브, 문화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전주 문화재와 한옥마을의 야간 풍경이 어우러진 '전주 야행 천년 벗담'도 행사의 마천표를 찍었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재의 역사성과 전주의 역사·정체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정해은 기자

출연료 미지급등 '예술인 복지법' 위반 사업주 첫 시정조치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연극 기획자 7씨는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했다. 이들은 3개월간 7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7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7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7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국농어촌문학상 우수상에 김상휘

'추사의 숨은 꽃' 서 나빠지는 농촌환경다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한국농어촌문학상 공모에서 고창출신 소설가 김상휘 씨가 '추사의 숨은 꽃'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소설가는 김수목 나빠지는 농촌 환경을 소설 '추사의 숨은 꽃'에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에 대해 또 다른 스토리로 농촌에 희망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문인협회와 함께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주제로 시(시조), 소설, 수필, 동화를 해마다 공모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다. 김 소설가는 1992년 문단에 데뷔한 중견작가로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서울의 달, 서울부엉이, 국풍김정호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전주예술상, 전북문학상, 한국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리며, 상금 200만원과 상패를 전달한다. /정해은 기자

대학생활박람회 '유니브엑스포' 전북대에서 개최

'대학생활에 색을 더한다'를 주제로

대학생활 박람회인 '2016 유니브엑스포' 전주가 오는 12일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2016 유니브 엑스포 전주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뚜렷한 색을 찾아 보다 다채롭고 생기 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교자 기획된 축제다. '대학생활에 색을 더한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유니브 엑스포 전주는 기존의 취업박람회보다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기업들이 원하는 캠퍼스 커리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박람회, 강연 및 페스티벌, 취업 상담 및 창업컨설팅으

로 나뉜다. 대학생활 박람회에선 동아리/대외활동 부스 활동 및 기업/채용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강연 및 페스티벌에서는 유명인사 특강 진행 및 대학생 소통 페스티벌이 열린다. 마지막 취업 상담 및 창업컨설팅에서는 취업컨설팅(대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홍보), 청년 버스 운영(취업상담 및 창업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과감하고 실험적인 기법 쓰는 촬영작가 '닉 나이트' 사진 한국에 온다

대림미술관 6일부터 전시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을 믿어야만 한다. 그것은 오만한 믿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이 만든 것대에 자신의 삶을 맞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닉 나이트 사진전 · 거침없이, 아름답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포토그래퍼 닉 나이트(58)의 사진이 한국에 온다. 과감하고 실험적인 촬영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온 사진작가다. 대림미술관은 오는 6일부터 '닉 나이트 사진전 · 거침없이, 아름답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닉 나이트는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결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시도한 1세대 작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알렉산더 맥퀸, 톰 포드, 비오르, 레이디 가가, 케이트 모스, 보그, 아이디 등 패션디자이너와 모델들과 협업 프로젝트로 브리티시패션 어워드(British Fashion Award, 2015) 등에서 수차례 수상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2000년 설립한 웹사이트 쇼스튜디오(SHOWstudio)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영감과 창작과정 등의 실험적 콘텐츠를 실시간 공개하며 대중적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 스스로를 이미지-메이커(Image-Maker)라 칭한다.

다큐멘터리에서 패션사진, 디지털영상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 2010년 대영제국훈장(OBE)을 수여받았다. 이후 테이트 모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사치 갤러리, 보스톤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한국에서 첫 사진전은 다큐멘터리적 시선부터인종 동물보호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포용한 패션 캠페인, 그리고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100여점을 총망라하여

선보인다. 정밀한 질감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정물화(케이트 STILL LIFE & KATE) 도 소개한다. 알렉산더 맥퀸과의 오랜협업을 회고하는 영상과 3D 스캐닝등의 실험적 표현기법을 결합한 최신작들로 구성된 '패션 필름(FASHION FILM)'도 볼 수 있다. 대담한 파괴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안기며 닉 나이트의 독창적인 시선을 탐닉할 수 있는 기회다. 2000~5000원 /뉴시스

제본되지 않은 책, 스페셜 에디션 '하우스 오브 픽션'에 주목

'하우스 오브 픽션' 스페셜 에디션을 보면 당황한다. 책 같지가 않다. 제본되지 않고 날것처럼 되어있어 '잘못 나왔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이 책은 원래 이렇게 나왔다. 이 책을 출간한 스웬벵데 따르면 두가지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졌다. 하나는 넓은 평면(정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제본을 위한 '리브르 아틀리에(Livre a atelier)'다. 리브르 아틀리에라는 생소한 용어부터 알아보자. 특별하게 제본되기 위해 제본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책을 가리키는 책을 뜻한다. 대부분 내용이 인쇄된 내지를 접은 뒤 테두리를 잘라내지 않고 페이지 순서대로 추려놓거나, 혹은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심로 한두번만 꺾어 표지에 끼워놓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주로 대량 생산되는 책이 초판중 소량 또는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을 리브르 아틀리에로 제공하며, 구매할 독자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책을 제본하고 소장할 수 있다. 이 책 '하우스 오브 픽션' 스페셜 에디션은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제본되지 않은 채로 정식 출간된 최초의 리브르 아틀리에다. 스페셜 에디션:무선본+리브르 아틀리에 합본(한정판)이 패키지 박스에 들어있다. 4만8000원.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책읽어주세요' 9일로 연기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10월2일 예정됐던 '책 읽어주세요' 행사를 같은 달 9일로 연기했다. 북상 중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당일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지역 대표축제인 '서리풀 페스티벌'과 연계한 이 축제는 저자 만남·책 장터 등으로 꾸며진다. 연기된 저자와의 만남은 10월9일 오후 5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운범의 퍼즐레믹스'의 저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을 초청, 서양음악사에 대한 강연을 연다.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잔디마당에서는 서초구립반포도서관,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18개 도서관이 함께 하는 책 장터가 열린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여위숙)은 국립중앙도서관부터 예술의전당까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란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책 읽어 주기의 중요성 및 전국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 읽어주세요' 캠페인을 알릴 예정이다. /뉴시스

따라볼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0월 4일)

▷ 쥐띠
46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물. 때를 기다려라.
60년생: 매사에 언행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못하다.
72년생: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이다.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소띠
4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1년생: 나중에는 흥하니 일이 잘 풀때 다음을 준비하라.
7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85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

▷ 호랑이띠
50년생: 여유로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운이다.
62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 운이다.
74년생: 성격이 강했던 실수로 인해 낭패가 있으니 매사에 주의.
86년생: 무리한 추진은 실패를 부르니 주의하라.

▷ 토끼띠
51년생: 내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운이니 주의할 것.
63년생: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너무 지나치지 말고 모자르지도 않게하라.
87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 용띠
52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4년생: 정신이 맑지 않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7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로 마음 고생하는 운.
88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 뱀띠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65년생: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여성을 대동하라.
77년생: 막힘이 있는 운이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

▷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틀어진다.
66년생: 좋은 일하고 뺏기는격.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나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 양띠
55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7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7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 쓸 일들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
91년생: 모진 말들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는 운.

▷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2년생: 들리도록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 닭띠
57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니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81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 개띠
46년생: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마라.
58년생: 완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0년생: 문서에 걸음이 들었다.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 아주 좋은 날.
82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에 가서 틀어질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처음에는 틀어지나 후반에는 화합하니 급하게 서둘지 마라.
71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83년생: 급성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 특히 소화기를 주의.